

옴기1

OT / 시가서&옴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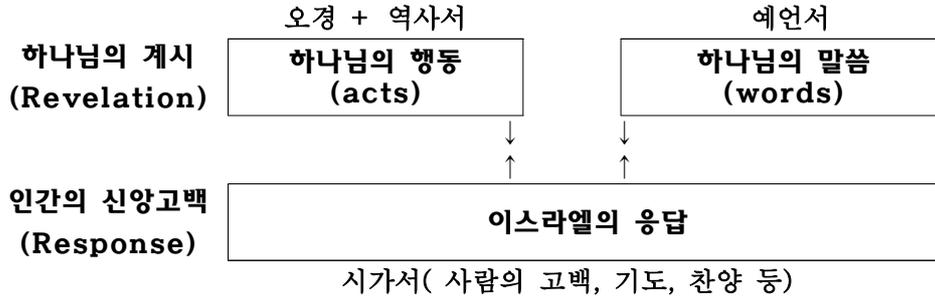
※ 옴기서를 선택하신 이유, 또는 옴기서에서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 2021년을 마무리하며 & 2022년을 기대하며 기도제목을 적어봅시다.

- 1.
- 2.
- 3.

※ 구약 성경

구약의 중심축



I. 시가서 개관(시가서+지혜서)

- 지혜서 : 세속화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되는지를 격언의 형식(잠언), 설교의 형식(전도서), 논쟁/변증(욥기)으로 보여주는 성경

- ① 처세문학 : '삶의 지혜(기술)'을 가르쳐줌으로, 성공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교훈
- ② 성찰문학 :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앞에서 삶의 의미를 깊이 살피는 지혜

II. 욥기 개요

1. 욥기의 개요

1) 저자 : 익명의 저자

- 욥(이름 뜻: 고난받는자, 회개하는 자)

2) 역사적 배경 :

- 족장시대이나, 기록연대는 정확히 알수 없다
-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지혜문헌에 속한다.

3) 구조

프롤로그(1-2장) : 욥의 고난이야기

- 하나님과 사탄의 욥의 신실성에 대한 내기(천상회의)

기
(起)

둘째, 욥의 독백과 친구들과의 논쟁(3-31장)

- 욥의 고통을 죄의 심판으로 보는 3친구들과 욥의 논쟁

승
(承)

- 욥과 3친구들의 1차 변론(4-14장)
- 욥과 3친구들의 2차 변론(15-21장)
- 욥과 3친구들의 3차 변론(22-31장)

셋째, 엘리후의 연설들(32-37장)

전
(轉)

넷째, 하나님의 현현(38-41장)

에필로그(42장) : 욥의 회복이야기

결
(結)

4) 구약성경 / 지혜문학 안에서 욥기의 위치(참조, 전도서 특강, 권지성 저)

- 구약성경은 모세오경을 포함한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시가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로 보고 창조-타락-구원-완성의 사이클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구속사적 해석법 혹은 언약신학적 해석법은 가장 일반적인 통합적 성경 읽기다. 이때 구약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해 구속사의 거대한 뼈대 속에서 그 위치와 의미를 찾아간다. 하지만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이스라엘 역사와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 욥기는 이방인의 땅 우즈에서 일어난 일이며,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의 보편적 격언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도서 역시 명백한 역사적 시점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지혜문학은 다시금 구약 해석에 있어 거시적인 신학의 주제들과의 연계성 속에서 학자들로부터 재조명받고 있다. 즉 학자들은 일관된 지혜문학의 주제로 여호와 경외, 창조신학, 언약과 질서, 의인화된 지혜, 생명과 죽음의 두 길, 신적 주권(Divine Sovereignty)을 말한다. 지혜문학이 정경의 일부이며 이 책들 또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잠언은 율법과 규범, 신명기적 질서에 더 가까운 지혜문학을 드러내는 반면, 전도서는 헤벨의 세상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영역에 있음을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종속된 인간의 운명과 결정론적 관점을 다룬다. 욥기는 무죄한 자의 고통을 다루면서 오히려 경건한 자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대한 지혜를 진술한다. 이처럼 잠언, 전도서, 욥기는 역사적 상황과 무관한 보편적 격언과 훈육 등에 대해 대단히 상이한 관점으로 지혜를 말한다.

2.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1) 욥은 자신에게 닥친 어떤 고난 중에도 인내로 이를 견디어 내었다(?).

2)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3) 성경 / 신학자들의 해석

- 겔 14: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 겔 14:20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 약 5:11 : 초대교회의 박해에 직면한 교인들에게 욥의 고난과 인내, 순종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도록 권면

- 크리스소스톰 : AD387. 물질적 부에 매이는 삶을 부정하고, 사탄의 주장에 얽매이는 삶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응원

- 마틴 루터 :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칼빈 : 857편의 설교중, 159편을 욥에 대하여 설교함, 그의 욥기 설교 중점은,

a. 욥의 불평에 대해서 폭풍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연설 서두에 중심.

(38:2,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 b. 미물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유한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불평함.
- c. 인간은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절대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4) 결론 : 교회의 목회적 관점에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지배체제 하 유용한 해석이었다.

5) 그러나 실제의 욥기는?

a. 욥은 자신의 부당한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항하였던, 저항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물론 욥의 인내에 대한 해석은 절대적이지만).

b. 욥은 수동적 인내로 고난을 이겨낸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인간 실존의 비극적 변뇌와 끝없는 갈등, 주변의 몰이해와 박해에 대항하는 불굴의 저항, 부당한 고통에 항의하면서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을 통해 인간의 사고, 인간의 규범(종교/윤리체계, 경제논리,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다.

c.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사색’으로만 볼 수 없는 경건자(신앙인)의 치열한 ‘부르짖음’이다.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이해 정도가 아니라, 실존적 체험과 깨달음이 깊이 서려 있다. 한 의인의 하나님 만남이 (ㄱ)처음에는 안정된 축복으로, 그리고는 이내 (ㄴ)전통적 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러나 (ㄷ)마침내는 깨달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생생한 인생 다큐멘터리이다. 물론 마지막 욥의 깨달음과 복은 마침내 주어지는 신앙(인)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 현실은 어떤가? 실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욥의 고난과 그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기독교의 하나님의 구원 의지로 승화될 수 있다.

3. 욥기를 위한 신학적인 서론

1) 서론 부분에서 사탄은 욥의 신앙의 동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앞에 그의 경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주장한다. 만약에 그에게 허락하신 안정과 번영 그리고 건강을 몰수하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저주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탄의 고발은 서론 1-2장에서 결국 드러나는 욥의 경건한 신앙에 의하여 수포로 돌아가고 있지만, 일단의 주석가는 이후 욥기 전체가 인간의 신앙의 동기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욥과 친구들 사이의 권선징악(勸善懲惡, 상선벌악(償善罰惡))의 교리에 대한 진위 여부를 꾸준히 토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신앙적 동기의 주제가 욥기 전체의 화두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욥기 이해의 주된 코드 중 하나로서 ‘왜 믿는가?’¹⁾라는 질문이 대두된다.

1) 우리는 종종 “종교는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한다. 종교의 기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기복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욥기 후반부에 욥이 도전하는 것처럼, 과연 “욥의 고난이 정당한가?, 아니 욥이 그 정도 고난을 받는 것이 옳은가?”를 묻게된다. 이것이 신정론(神正論-theo(신)-dicy(의))이다. 신정론은 다음 전체에서 시작한다. ①신은 존재한다. ②그 신은 전능하고, 또 선하다. ③그러나 세상에 악/고통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신학과 종교철학에서 선한 신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세계에 왜 악

2)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논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3-31장에 이르는 해당 본문은 욥기 전체의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루한 논쟁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주석가들과 설교가들은 그리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번의 사이클로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욥의 사상에는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세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다. 욥은 오히려 소모적으로 보이는 논쟁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나 친구들은 자신들의 교리적 관습에 여전히 얽매어 있기에 신앙갱신의 여지를 간과한다. 욥은 실존적 바탕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친구들은 교조적 테두리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와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출현 이후 42:7에서 최종적으로 욥의 말이 세 친구들의 말보다 옳았음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본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친구들과의 논쟁의 내용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욥의 말이 왜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된다.

3) 하나님의 폭풍우 연설의 내용(38-41장)에 대한 주의깊은 해석이 요청된다.

- 그 연설은 욥의 부르짖음 즉, 의인과 고통과 악인의 번영에 대한 항변에 응답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석자들을 당황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보다는 오히려 반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창조세계에 대한 묘사와 신화적 존재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는 과연 욥(의인)의 고난(이유없는 재난)과 부르짖음(기도)에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우리를 또한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욥의 깨달음이다. 도대체 욥은 ‘무슨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세상 섭리에 대하여 ‘무엇을 깨달았는가?’에 질문을 하게 된다.

4) 욥의 후기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욥의 결론 부분은 과연 경건한 욥의 인내와 순전으로 인해 갑절로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만일 서론과 결론부분만 읽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욥기 형태를 전체적으로 읽는다면 욥의 갑절 축복의 후기는 모순이다. 욥이 세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부정한 인과응보 이론이 최종단계에 이르러 다시금 긍정되어 욥기 전체의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작 저자가 욥기를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기존의 인과응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의인 욥도 그와 같은 처절한 고통의 현장 한 가운데로 내몰릴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에 죄많은 자들이라도 평안히 살아가는 현실 또한 폭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결론은 다시금 욥이 모든 시험을 다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친구들보다도 ‘정당했기에’

이 존재하느냐는 묻고, 이에 대하여 답을 찾는 것이 신정론(또는 변신론)이다.

- 신정론에 대한 성경적 접근 : 악과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 답변으로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성서에 따르면 신정론은 없고 단지 인정론만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악과 고난의 현실은 그것의 극복을 위한 인간의 행동을 요구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 안에서 해방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서적 증언은 악의 기원에 관해 사변을 전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확신 가운데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데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길은 이론적 지식에 있다기보다는 변혁적이고 해방적인 실천에 있다. 메츠(J.B.Metz)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을 노예로 얽어매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적 항거를 회상하는 위험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 기억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모든 불의한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 욥기의 저자(또는 편집자)는 본문을 통해 철저히 무너뜨렸던 인과응보 이론을 다시금 일으켜 세움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무효화 시키는가? 욥이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회복과 축복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갑절의 축복인가?’

※ 참고도서

- C. 애쉬, 『욥기 - 십자가의 지혜』, 성서유니온
-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감은사
- 송민원, 『지혜란 무엇인가 - 잠언-욥기-전도서의 상호작용』, 감은사
- 이경재, 『욥과 케보이』, 대한기독교서회
- 차준희, 『시가서 바로 읽기』, 성서유니온
- W. 브루그만, 『구약신학과의 만남』, 프리칭아카데미
- 권지성, 『특강, 전도서』, IVP

욥기2

욥기 내용 이해(1-3장)

III. 욥기 내용(1-2장; 프롤로그²⁾) 이해

1. 욥 소개

1) 우스 : 애가 4:21에 근거, 욥은 에돔 지역 인근에 거주하였다.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족장시대라는 전통적인 의견을 따르면 큰 의미는 없음. 또한 이방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난 자체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다.

2) 완전한 의인 : 하나님의 평가(1:8)에서도 그렇고, 욥기 저자는 그를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로 기록한다.

3) 최고의 재벌 : 온전한 삶을 살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완전하고 충만하였음을 볼 수 있다(2017년 조사, 양 7천마리-약 21억, 낙타 삼천마리-약 9억, 소 오백여리-약 50억, 암나귀 오백마리-약15억, 종도 많이- +α).

4) 아들 7명, 딸 3명 : 우애가 좋아보이고, 예방제사와 같은 보험까지 들어서 가족들도 잘 관리하는 바른 생활을 하였다.

5) 고난 중 신앙고백(1:21) :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6) 욥의 아내의 고백(2:9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 사람들이 종종 내뱉는 말입니다. 혹 입으로 내뱉지는 않더라도 마음과 행실로 표현하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도 다 소용없다’는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 우리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까?

7) 욥의 응답(2:10,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 완벽한 신앙고백이자, 최상의 신앙고백이다. 욥의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았을지 물어보고 싶다.

2. 여호와와 사탄³⁾ 천상 (대화) 장면1

2) 뜻 : 뒤에 진행될 본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상징하거나 시작을 뜻하는 장면이 된다.

의미 : ①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비록 주인공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그 배경을 알고 있으므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 독자는 이미 범인을 알면서도 콜롬보처럼 범인을 찾아나서는 탐정 소설의 독자वाद 같다. ② 앞으로 닥칠 욥의 고난에 대한 율물론적 해석, 공리적 해석, 인과론적 해석, 도덕적 해석은 도대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준다.

독자들은 이 프롤로그(욥기 1-2장) 때문에 앞으로 등장하는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의 연설에서 제기되는 욥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 또는 인과론적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 더욱이 폭풍우 속에서 현시하는 여호와의 대답은 독자들로 하여금 과연 여호와의 대답이 욥의 고난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여부에 고개를 갸우뚱하게까지 만든다. 그것은 모두 독자들이 프롤로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프롤로그는 욥기 전체 구성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욥기가 욥기 되게 하는 (문학적) 장치임을 알 수 있다.

3) 여기서 사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귀’나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히브리어 상으로 ‘그 사탄’으로 욥기에

1) 대화1

-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는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 사탄이 대답한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 대화2

- 여호와께서 다시 묻는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 사탄이 대답한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모든 종교에는 기복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 애매한 경계선)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보호)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 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3) 1차 결론 :

- 여호와께서 답하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 욥이 재산(과거)과 자녀(미래)를 모두 잃었다.
 - 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빼앗고 죽였나이다.
 - ②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 ③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빼앗으며, 죽였나이다
 - ④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 ① 욥이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 ②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3. 여호와와 사탄 천상 (대화) 장면2

1) 대화1

-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는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 사탄이 대답한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는 모두 11번 언급되는데,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며, 이는 ‘직무’를 가리킨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인간의 죄를 찾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여호와와 치리를 돕는(?) 고발자, 고소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여호와에게 대적하는(대적할 수 있는) 독자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는 여호와와 허락하에 부여받은 어떤 힘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욥의 사탄은 국가가 부여하는 권력의 한계 안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기능적) 장면에서 욥에 대한 태도가 선(중립적)하지만은 않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사탄은 욥의 경건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다.

- 중간시대와 헬레니즘 이후 신약성서에서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사탄(devil), 즉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로서의 ‘악한 영’ 또는 ‘마귀’이다.

2) 대화2

- 여호와께서 다시 묻는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 사탄이 대답한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3) 2차 결론 :

- 여호와께서 답한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 욥이 건강을 잃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 그의 아내는 과거의 논리(온전과 정직 => 화평과 평안)를 부인한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⁴⁾을 욱하고 죽으라”

- 욥이 아내에게 말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세계 3대 악처: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욥의 아내(어거스틴/칼빈: 악마의 보조자/사탄의 도구))

- 3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 너무 기가막혀서 할말을 잃었다.

- 욥의 3중 고통(모든 것을 잃은 상실, 병으로 인한 통증, 사회적 죽음).

4) 그녀는 모든 혈육과 소유를 상실하였고, 사랑하는 남편마저도 심한 종기로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그녀는 깊은 절망과 좌절의 벽에 부딪혀 이와 같은 탄식조의 말을 했다. 과연 나라면 어떨까?

- 민영진 교수는 헬라이어 구약성경(LXX)에서 이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던 어느 날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을 작정이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고요? 당신이 이런 처지에서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당신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보, 날 좀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기억해 줄 자식도 하나 없어요.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온 자식들, 내가 온갖 고생 다 해가면서 키운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이렇게 거름더미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종살이나 하고 있고, 이 지긋지긋한 고된 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보려는 생각에서 하루 종일 해지기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제발 주님께 뭐라고 좀 말하고 나서 죽어버리세요.” 욥이 10절에서 이어하는 말을 떠올려보면, 욥은 아내의 심정을 이해한 듯 보입니다. 또한 추후에 욥의 아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즉, 완전히 떠났다고 볼 수 없다.

- 만들어진 신(리처드 도킨스) :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미국의 광적인 신앙을 비판하며 무신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다. 저자는 신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신을 믿음으로써 벌어진 참혹한 전쟁과 기아와 빈곤 문제들을 일깨운다. 저자는 신이 사라진 이후의 사회가 오히려 더 희망적이라고 역설하며, 여러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신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갔는지를 보여준다. 신에 대한 부정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인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일이고, 미래 사회의 대안은 종교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다.

- 도킨스의 신 / 도킨스의 망상(알리스터 맥그라스) : 서문에서 맥그라스는 생물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일궈낸 '학자 도킨스'가 왜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적대적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도킨스에게 있어서 절대는 '과학'이다. 과학의 분석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법칙, 진화생물학자인 그의 입장에서 진화만이 모든 생물의 존재이유를 말해준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에게 '신'이란 지성적이지 못하고 유아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다.

IV. 욥기 내용(3장) 이해

1. 욥의 탄식

1) 생일을 저주

- 3장에서 욥은 2장까지와는 다른 욥의 모습이다. 1-2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는 ‘침묵자’의 모습이었는데, 3장부터는 ‘논쟁자’로 바뀐다. 욥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인내했지만,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원자’로 바뀐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난 날이 멸망, 자신을 잉태했던 밤을 저주한다. 욥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탄식과 함께 자신의 삶을 저주한다.

- ...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1절),
-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3절)
-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4절)
-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7절)
-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11절)

2) 욥의 희망은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지금 당장 죽으면 자신이 겪는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욥은 억압과 고통이 없는 죽음의 세계에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지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욥이 죽음의 세계 안에서 안식을 희망하는 것은 그곳에서는 아무런 인고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13절)
- 거기서는 약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쉬**을 얻으며(17절)
-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18절)
- cf)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10)

3) 욥은 행복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나, 자신의 무죄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자신의 처지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지도 않는다. 극도의 고통속에서 그의 뇌리를 스치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면’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욥은 고통을 감당치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숨김없이(있는 모습 그대로, 토설, 시32:3) 보이고 있다. 욥은 아마도 마음속의 억누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어느정도의 평안과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욥은 이렇게 토설(독백,기도) 후 정신을 붙잡은 이후에 이어지는 욥의 친구들과 과의 논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욥기3

욥기 내용 이해(4-37장)

V. 욥기 내용(4-31장) 이해

- 욥과 3친구들의 1차 변론(4-14장)
- 욥과 3친구들의 2차 변론(15-21장)
- 욥과 3친구들의 3차 변론(22-31장)

1. 욥기4-29장의 문제 : 지루한 인과응보 교리의 반복

1) 문제제기

- 욥과 세친구와의 대화는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욥기 전체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입만 열면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는 세 친구를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반박하고 있다. 그래서 욥은 의심하고 항변하는 신앙의 반항아로 비쳐지기만 한다. 왜 이렇듯 정통 교리에 근거한 친구들과 반대입장을 펴는 항의조의 욥의 격론을 3주기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을까? 만약 욥기가 1-2장과 친구들과의 변론, 엘리후의 변론, 하나님의 응답, 42장으로 간소하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만약 고난속에 인내하는 욥의 신앙을 드러내고자한다면, 1-2장과 42장만 기록해도 충분할 수 있다. 즉 욥기는 단순한 순종과 인내의 신앙과는 다른 내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와 그 긴 호흡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는 것이다.

2) 본문 관찰

-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이 우리에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은 계속해서 똑같은 인과응보 논리와 악인의 심판을 되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의 경우,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그의 사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의 신앙의 지식은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측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욥과 3친구들의 변론(4-31장)

1) 친구들의 신학(고난의 원인에 중점)

- 신명기 신학은 여호와의 뜻을 따른다면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되고 망한다고 선언한다(동양사상-순천자흥(順天者興)역천자망(逆天者亡)). 친구들의 신학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판에 박힌 인과응보의 관습적 신학이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죄와 벌, 의와 축복은 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적 신학이 결과론적 신학으로 해석되면 천박한 신학으로 전락하고, 결과가 좋으면 원인(과정)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a. 데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4:7-8; 인과응보의 고난)

- 3절(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을 근거로 보면, 욥 자신도 이러한 신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

-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받 같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 대책(5:17-19, 하나님께 징계 받는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 회개

b. 욥의 항변(6:24) : 엘리바스의 권선징악(욥의 고난은 욥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자기의 징계를 받을만한 잘못(나의 허물된 것)을 행한 게 없다.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당당하게 항변한다. 실제로 욥은 엘리바스의 권선징악 수준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c. 수아 사람 빌닷의 말(8:3-6, 7)

-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창대이론) ; 대표적인 개업 / 이사 심방에 사용하는 성경구절.

d. 욥의 2차 항변(10:2,7)

- 빌닷이 자녀의 죄를 거론했지만, 욥이 아는 한 철저히 그것을 살폈고, 조치를 취했으며, 욥은 그들의 죄는 물론, 그들이 지었음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미리미리 속죄 제사를 드렸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e.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11:2-6⁵), 14-15)

-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f. 욥의 3차항변(1-3) :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 또 다시 간청한다(13:23-24)

2) 3친구들과의 대화(정리)

-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도식에 맞추어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어떤 죄의 결과여야 한다. 따라서 욥이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선다면, 욥의 고난도 끝나고 축복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친구들의 진단이자, 처방이다. 그러나 프롤로그를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다. 욥의 억울함을 동정하고 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친구들이 진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13:2-6).

5) 표준새번역 11:6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욥은 자신이 죄를 지은적이 한번도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7:21, 13:26). 그러나 그가 범했을지도 모르는 죄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될 정도의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욥은 항의를 한다(13:23).

- 욥은 친구들의 신학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행해지는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욥은 끊임없이 말로 방어한다. 욥의 속 마음은 하나님만(프롤로그를 읽은 독자들) 아신다.

VI. 욥기 내용(32-37장; 엘리후의 연설들) 이해

1. 엘리후 등장

- 욥은 3친구들과의 긴 변론 속에서 기존의 도덕적 질서(또는 종교)와 같은 형식의 쉽고 편리한 길이 아닌, 자신의 부당한 불행을 해석하고 수용하지 않고, 끝없는 질문과 저항을 통하여 하나님과 변론한다. 욥의 불평은 그가 믿었던 세계의 도덕적 질서, 신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데 대한 항거와 저항이다. 니체는 이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신에 대해 ‘신은 죽었다’⁶⁾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2. 엘리후의 중심 내용과 평가(고난의 목적에 중점)

a.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경한 일이라고 질타한다. 신은 욥에게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인간)이다. 엘리후는 신은 정의롭고 지혜롭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주장한다.

6) 니체, Gott is tot 이어령 박사는 이 말에 대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말처럼 잘못 알려진 말이 없다. 독일어로 니체의 말을 보면 우리나라 말처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임을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신이 죽고 있다, 신이 죽는다’라는 뜻으로, ‘죽고 있다’와 ‘죽었다’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형일 경우에는 다시 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죽었다’는 이미 나에게는 상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니체 이전의 인간은 선과 악, 불행과 비극 등 모든 책임을 신에게 돌릴 수 있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떠넘길 수 있었지만, 신이 죽었다면, 변명할 곳 없이, 인간에게 엄청난 짐을 던져준다. 마치 황무지에 홀로 내던져진 상태 같아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신의 자리에 ‘아버지’를 놓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고아’가 된다. 원망할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믿을 만한 것은 사라지고, 허무주의 뿐이다.”라고 말한다. “니체는 이 극복의 방법으로 ‘초인(超人)’을 등장시키고, 인간의 나약함과 위선 때문에 약자들이 오히려 강자를 지배하는 ‘거꾸로 된 세상’을 뒤집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정신의 발달 단계는 ‘낙타-사자-어린이’이다. 의무감과 질서라는 짐을 지고 순응하며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삶의 주인이 된다 해도 여전히 환경은 사막.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이 바로 ‘어린이’이다.

그는 니체의 말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던 절대적 가치가 가짜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신은 죽는 것이며, 그 허무의 별판에 서서, 초인은 내가 운명을 걸머쥐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탄생시켜 끝없이 새로워지고 창조하면서 상승해 가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 오늘날 니체를 읽지 않았어도 니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허무주의의 바다에서 좌절하기 전에,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초인이 되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 부활을 통해 이전과 달라지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양화진문화원, 목요강좌, 2014년9월18일)

b. 3친구들과 욥을 엘리후는 비판한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은 선을 권장하시고, 악을 징벌하신다.” 3친구들은 욥이 받는 고난을 보면 분명히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욥은 이와같은 전제에서 악한 고난을 받을만한 악한 원인이 자기에게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하나님의 엘리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없다. 그래서 어렵다. 세친구들과 비슷한점도 있지만, 다른점도 있는데, 그것은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을 깨닫는 단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33:12)”를 제공한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 주체라는 ‘인간’에 대한 물음, 그 판단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판단행위는, 하나님을 인간이 세운 범주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이며, 선의 영역, 전능의 영역을 상정해놓고, 인간은 그 최고의 선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재단하는 오류, 교만에 빠지게 된다.

3. 소결론

- 엘리후는 신과 인간의 차이를 표현하며, 그를 부르는 것이 오히려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현현하면서 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욥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보다 더 위대한 초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주적 질서를 설파한다. 이로부터 욥기의 모순적 문제가 부각된다. 도덕적 질서와 우주적 질서의 관계는 무엇인가?

욥기4

욥기 내용 이해(38-42장) / 결론

VII. 욥기내용 (38-41장; 하나님의 현현) 이해

- | | |
|-------------------------------|------------|
| ■ 창조세계의 구조와 질서(38:2-38) | 1번째 연설(대답) |
| ■ 동물들의 세계(38:39-40:2) | |
| ■ 하나님의 도전적 제안(40:7-14) | 2번째 연설(대답) |
| ■ 베헤못(하마)과 리워야단(악어)(40:15-24) | |

1. 욥의 항의

1) 욥은 그가 범했을지도 모르는 죄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될 정도의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욥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있습니까 라고 항의한다. 과연 여호와와는 인간의 조그만 흠이라도 찾아서 참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일까?

2) 욥은 인간을 ‘썩은 물건’이나 ‘좀먹은 의복’처럼 만드는 신이 여호와라면, 그 신은 프로이트적인 공격성의 화신으로 잔인한 신이고, 사탄적인 신일 것이다. 이 점에서 욥은 여호와의 속성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독자들은 프롤로그를 통해서 이미 욥에게 고난을 가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사탄에게 이를 허락한 존재가 여호와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욥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이와같은 항의를 하고 있다. 절망적인 한계상황에서 욥은 여호와께서 잔인하게만 느낄 수 있고, 희미하기도하고 한계적이기도 하는 인간적 사고를 볼 수 있다.

3) 3친구들은 여호와의 권능과 지혜(인과응보 또는 자연법칙)만을 생각하지만, 욥은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이를 통해 다른 지혜를 생각한다. 여호와의 정의에 대한 물음표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세우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간다. 사탄이 욥을 고발하던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여, 욥의 연설(13:29-31)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고발당하는 상황으로 역전된다.

4) 욥은 31:5-6을 통해 여호와를 상대로 맹세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맹세는 정당하지 못하겠지만, 만약 욥의 발언처럼 그가 의롭다고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지고, 동시에 욥의 현재의 고난에 대한 충분한 해설(부연설명)과 보상이 이뤄져야 할 수도 있다(욥 31:35, 37). 욥은 제우스에 대항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당당히 서서 여호와를 몰아세운다.

5) 이에 여호와께서 폭풍속에서 대답한다. 그러나 그 전에 엘리후가 등장한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경한 일이라고 질타한다. 신은 욥에게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인간)이다. 엘리후는 신은 정의롭고 지혜롭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주장과는 달리 여호와와는 응답한다. 이 응답은 욥의 저항 때문이다. 폭풍속에서 나타난 여호와는 그야말로 폭풍속에 던져진 존재이다. 이제 여호와는 폭풍속에서 자기 변명을 할 수 밖에 없다. 여호와는 심판대에 올랐다.

2. 폭풍 속의 여호와

1)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아름다움과 숭고함(sublime)의 차이를 고식화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대상의 형태에 대한 개념으로서 한계가 있고 형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숭고함은 형태화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개념으로써, 한계가 없다. 즉 아름다움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숭고함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압도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토(Rudolf Otto)는 이러한 숭고함을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신비’라고 정의하였고, 이는 신을 만나는 피조물의 근원감정(누미노제, numinose)의 감정이라고 불렀다.

2) 이렇게 볼 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나타나는 여호와의 현현(神顯)은 매우 강력한 숭고함의 장면이다. 욥의 고소를 받고 폭풍과 함께 등장한 여호와는 거꾸로 욥을 향해 질문하는 것으로 자신의 말을 시작한다(38:2,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어서 ‘허리를 동이고’와 같은 씨름의 메타포를 통해 대장부가 씨름을 하듯이 한번 싸워보자 말한다(38:3). 이어 길고 긴 2번의 연설(38-41장)을 질문의 형태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연설은 다시 다음 2연설로 나눈다.

- 첫 번째 연설1(38:4-21) : 땅과 하늘과 바다 등의 우주창조에 대한 이야기

- 첫 번째 연설2(38:39-39:30) : 사자, 염소, 말, 독수리 같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

요점은 여호와가 우주의 창조자이고, 관리자이며, 전능자인데, 피조물에 불과한 욥이 감히 어떻게 여호와와 대적하려고 하느냐의 말이다.

3) 무섭고 두려운 신비와 매혹적인 신비 앞에서 욥은 침묵을 지킨다(40: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계속해서 욥을 몰아세운다(40: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말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욥을 압도하고 전율케 하는 숭고함 그 자체이다. 욥이 모든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할 수 있고, 악한 자들을 모두 땅에 묻을 수 있다면, 여호와는 욥에게 졌다고 인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욥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무고한 고난 때문에 여호와에게 송사를 걸었던 것이 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는 해야한다는 말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승복하고, 너의 손을 들어주겠다.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런 질문은 욥의 정의에 대한 질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호와의 억지처럼 들리기도 한다.

4) 여호와와는 그 후에 베헤못(40:15-24)과 리워야단(41:1-34)에 대한 두 번째 연설을 감행한다. 이 둘은 신화적 존재다. 베헤못(בְּהֵמַת)은 야생동물(베헤마)의 복수형으로, 일반적인 야생 들짐승으로 명칭된다(신32:24, 욥1:20, 렘12:4). 그런데 욥기에서 베헤못은 가장 최고(으뜸, 욥40:19)의 동물이자,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의 도구나 무기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헤못을 욥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40:15).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에서 빠져있던 ‘인간’ 중 특별히 욥이 베헤못과 동등한 자리에 위치해있음을 볼 수 있다. 리워야단은 입에서 뿜불이 나오고 불뚱이 튀며, 콧구멍에서 평평 연기가 쏟아지는 모습에서 용을 연상시킨다. 리워야단은 구약성서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시74:14, 사27:1, 욥3:8, 예외분문 -시 104:26). 본문에서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훌륭한 작품으로 묘사되고 있다. 리워야단은 베헤못과 같이 인간존재보다도 더 우위에 위치를 점한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무기와 도구들로도 이 괴물을 잡을 수 없다. 이 괴물은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창조세계 내에서 왕좌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욥기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은 욥이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둠의 세력인 리워야단에 과감하게 대응하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이 땅의 혼돈과 고통의 문제를 질문하며, 끝내는 대답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로서 등장하기에 이른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오직 그 뿐이다”

(욥 41:11, 개역개정/표준새번역)

즉 여호와와는 우주 운행의 원리 가운데 욥의 감각기관 밖의 신화적 존재를 통해서 그를 다그친다. 이에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에 그는 귀로 들은 여호와와 눈으로 본 여호와의 차이점을 말한다.

3. 욥과 하나님의 응답(두 질서의 충돌)

- 욥은 도덕적 질서에 대해 질문을 한 반면, 여호와는 우주적 질서에 대한 그림으로 응답했다. 그것이 욥의 질문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 폭풍속의 연설과 욥의 질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욥기는 하나의 통일된 작품일수 없다. 양자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은 욥이 질문한 도덕적 질서와 신이 대답한 우주적 질서 사이의 관계 방식의 문제이다. 양자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 폭풍속에서 현현하는 여호와와는 우주적 질서의 창조자요 보존자이며, 파괴자이다. 우주적 질서의 넓은 지평에서 볼 때, 욥에게 닥치는 자연적 재해(욥의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과 항거할 수 밖에 없는)와 고난은 인간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우연적 사건들로서 인과응보의 도덕적 질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다. 신의 정의는 인간의 도덕적 정의와는 다르다. 신으로부터 도덕적 정의의 멍에를 벗길 때, 신은 인간이 아닌 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적, 우주적’ 신은 과연 ‘도덕적 정의’의 인간 세상에서 의

7) Robert Frost, 『a Masque of Reason』 1945년, 이 짧은 희곡은 42장으로 구성된 욥기 의 43번째 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Frost는 연극 형식으로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연극에서 로버트 프로스트는 실낙원의 존 밀턴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정당화하기를 원합니다. 침탑 부시의 이미지는 나무

인에게 고난을 주는 또는 관여하지 않는 신인가? 만약 신이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한 비를 내리는 초도덕적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반면 도덕적 질서에 관심하지 않는 신은 신명기적 이스라엘의 신과는 모순적으로 보인다(911테러이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현재를 풀어낼 때, 각각이 믿는 정의와 신(하나님-알라)의 충돌관계).

-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지혜적 가르침이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폭풍우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신적 구원이나 자비의 선포도 아니고, 재판정에서의 변론이나 심판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주적 전쟁신화에 기초한 대적자들 간의 싸움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 섭리에 대하여 고민하며 갈등하는 한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계시적 가르침이다. 그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욥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온 우주의 장엄함과 조화로운 진행을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연설(대답)을 통해서 욥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된다. 이 세상의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둠의 문제는 바로 이 혼돈의 세력에 굴복치 않는 욥과 같은 존재가 창조세계 내에서의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게 될 때에 진지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세상 섭리의 동반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계의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삶을 통제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욥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세상 창조질서의 파트너로 서게 되었다. 물론 욥기 중간의 긴 부분에서는 욥 자신의 무질서한 존재로서의 한계(탄식과 분노)를 비추고 있다.

VIII. 욥기 내용(42장; 에필로그) 이해

1. 욥의 응답⁸⁾

- 귀로 들은 여호와와는 전통과 관습이 전하는 신명기적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 도덕적 질서의 신이다. 그러나 눈으로 본 여호와와는 이러한 신학/철학을 초월하고, 선악이라는 도덕적 질서의 피안에 존재하는 초인격적 모습이다. 이에 대해 욥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가르쳐 온 인과론적 신학, 친구들로 대변되는 신명기 신학을 탈-구축하고 있다. 욥은 신을 고소하여 법정에서 세움으로 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고, 그 봄을 통하여 전통적 신학을 탈-구축(니체의 초인)하게 되었다. 욥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인식의 전환(반전과 눈뜨임)을 하게 되었다고, 신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졌다. 욥이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히, 마아스-거부하다, 취소하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지각없이 지껄인 자신의 말을 취소,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하나님께 함부로 대든 것에 대해 취소),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히,나함-결정을 철회하다는 의미로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고백을 참조한다면, 욥 자신의 저항과 질문 자체가 옳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새롭게 깨달은 욥은 이에 회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저항과 질문

를 설명하는 데 분명합니다.

8) 공동번역 개정판 42:1-6, 1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2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3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 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지껄였습니다. 4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려든 대답하여라." 5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뵈었습니다. 6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우주적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계시⁹⁾).

- 신은 만물을 지배하는 힘이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근동 지역의 혼돈의 상징인데, 욥기에서 여호와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듯이 자신의 피조물로 묘사한다.

- 신은 우주에 충만한 지혜이다. 신은 욥의 무지를 아이러니적 질문으로 공격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반복적으로 대비시킨다.

- 신은 세계를 만들고 자연에 질서를 부여한 창조자이고, 그 창조는 아름다운 우주적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여호와가 땅의 기둥을 잡고, 주춧돌을 놓았을 때,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38:7)”

2. 하나님의 ‘욥의 친구들’ 심판

- 욥의 고소를 받은 하나님의 길고 긴 변명에 이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린다. 친구들은 틀렸고, 욥이 옳았다(42:7)¹⁰. 친구들이 틀린 것은, 친구들의 죄와 별, 의와 축복의 인과론적, 도덕적, 신명기적 신학은 틀렸다는 말인가? 프롤로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친구들의 신학이 틀렸고, 그들이 옳게 말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명하다. 친구들은 관습적 이데올로기, 인과응보의 신명기 신학을 그대로 반복하며 진리로 규정했다. 반면에 욥은 끝없는 ‘왜?’를 말하면서, 여호와에 대하여 항의하고 저항했다. 그런데 여호와는 욥이 옳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욥이 옳은 이유는 분명해진다. 추론해보건데, 법정에서의 승자는 ‘여호와’이기도 하고, ‘욥’이기도 하다. 여호와는 피고소인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욥은 여호와의 주장을 듣고나서, 고소인으로서 자기 주장을 거두어들였다. 욥은 여호와의 진면목을 보고 회개했고, 여호와는 욥이 옳다고 말한다. 모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고소인도 없고, 피고소인도 없다.

-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욥에게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였다. 친구들은 번제를 드리고, 욥은 대신하여 (중보자적) 기도를 드린다. 이로부터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욥을 볼 수 있다. 욥과 3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욥은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을 것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욥은 속죄의 제사

9)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듯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방식이 계시이다. ‘계시(啓示)’는 ‘아포칼립시스(apocalypsis)’와 ‘파네로시스(phanerosis)’로 표현된 신약성서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전자는 ‘벗기다, 드러내다’ 등을 의미하고, 후자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나 ‘쓰고 있던 가면 혹은 껍질을 벗어버리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표명(表明), 하나님의 자기 폭로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는 두 종류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가 그것이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한 계시를 말하며, 후자는 성경에 기록되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의미한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때와 장소 및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일반적인 것이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10) 실제로 욥은 옳았는가? 하나님을 법정에서 세웠던 상황은 욥이 옳았지만, 욥의 항변을 듣고 응답하셨던 전개 과정에서 욥은 스스로 죄인됨을 회개하였습니다. 즉 욥의 ‘신명기적 신학’ 하에서의 항변은 일리가 있지만, 그 전개를 통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운영의 원리하에서 그의 주장은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필로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욥이 옳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친구들은 틀렸다.

를 드러주었다. 동시에 그 시점은 욥이 회복되지 않은 아직 고난의 시점이였다. 그는 크신 하나님 주신 자유함 속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친구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

3. 욥의 (고난에 대한) 보상

- 여호와가 욥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2가지 물음을 할 수 있다.

첫째, 욥이 당한 고난은 과연 정당하는가?

둘째, 그의 고난에 대한 보상은 적합한가?

- 욥의 항의는 무고한자의 고통에 대한 질문이였다. 첫 번째 질문은 폭풍속에 들려오는 여호와의 변명이 참 대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맥락이다. 욥의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고난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은 옳지 않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죽은 자녀 대신 새로운 자식을 주는 것이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욥의 고난에 대한 또는 욥의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여호와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판결을 내린다. 그것은 욥의 재산을 이전보다 배나 돌려주고, 주변으로부터 명성을 되찾도록 해주며, 잃어버린 세 딸들을 낳게 하고, 140년을 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건강의 복을 주었다. 그리고 욥기는 욥이 행복하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또한 욥은 보상을 받는다. 물론 그 보상의 값이 정당한지에 대한 물음은 들지만, 어쨌든 욥은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의구심이 든다. 욥이 보상을 받는 것은, 다시 죄와 벌, 의와 복의 인과론적 세계, 친구들의 신명기적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일단 먼저 이해할 부분은, 욥이 바라본 하나님의 세계를 선악을 초월하는 초인격적 세계로 바라본다면, 욥에 대한 보상이 단순히 친구들의 인과론적 신학을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이 그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통해 경험한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명기적 신학과는 전혀 다른 한가지 면을 보게 되었다.

VIII. 결론

1. 신학적 서론에 대한 응답

1) 왜 믿는가?

- 신앙동기의 문제를 통해서 단지 믿음생활의 출발점 뿐만 아니라, 과정, 그리고 최종목표까지도 어떠한가라는 가르쳐준다. 보상을 바라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요동친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성생활, 즉 좋은 것도 나쁜것도 모두 다 하나님에게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생명력 있는 영성을 가능케한다. 하나님과의 영성생활 즉 관계성을 최고의 보상으로 그래서 최고의 목표로 생활하는 경건자가 참된 신앙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을 때에 유일한 목적은 생명을 허락하기 위함이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하나님과의 관계, 요

15:5,7) 될 때에 가능하다. 기존의 신명기사가의 신학을 통해 율법을 쫓는 언약 공동체의 관점에서 여호와 신앙의 의미를 찾던 신앙과는 구별되어, 욥기에서는 믿는자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신학적 사상이 발견되고 있다.

2) 왜 정당했는가?

- 신앙자의 기도내용을 돌아보게 한다. 구약성서의 기도의 신학은 일반적으로 시편의 탄식시들에서 발견된다. 특히 회개시라고 알려져있는 시편들(6,32,38,51,102,130,143편 등)은 시인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들을 자신의 죄악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올 때에 구원을 경험하는 전통적인 모습을 그린다. 그런데 욥은 그의 탄식 가운데 이러한 전통적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하며, 혹시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 이러한 욥의 태도는 기존의 구약성서의 여호와신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에, 친구들의 관습적 신앙에 근거한 회개 촉구와 욥에 대한 정죄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구들보다 욥의 편을 들어주신다. 본문에서 친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눈 앞에 펼쳐진 욥의 현실과 유리된 교조적 신앙의 반복에 있었다. 반면에 욥은 철저히 실존적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관습화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삶의 한 가운데에서 인생의 부정성을 정직하게 떠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르짖음이 응답된다.

3) 무엇을 깨달았는가?

- 하나님의 폭풍이 연설의 메시지와 욥의 깨달음은 구약성서 지혜문학의 창조신학의 관점에서 토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세상 섭리에 대하여 창조의 질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개별적 상황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하나님 세계의 질서는 여전히 태초의 운행법칙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깨달았을 때 욥은 자기 중심의 세계로부터 해방되어 비로소 하나님 세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욥은 이어진 베혜못과 리워야단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꾼(동역자)로 응답하며 새로운 신앙의 경지에 서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세계 통치의 지배권을 위임받은 창세기 창조신학의 인간론의 재발견이다.

4) 왜 갑절의 축복인가?

- 인과응보 회귀의 문제는 사실상, 욥기 저자는 부정된 인과응보 사상을 결론에 이르러 다시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신앙적 회복이 영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폰 라드 신학자의 “구약성서의 저자들에게는 세상경험이 곧 신앙경험이요, 신앙경험이 곧 세상경험인 것”처럼, 욥이 경험한 신앙적 성숙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의 경지의 깊이는 현실적인 갑절의 축복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결국 인과응보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보다는 인과응보가 완전하지 않으며, 동시에 인과응보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물음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욥기서 1장의 욥과 42장의 욥은 어떻게 다른가? 물질적 재산이 두배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다. 즉 1장 서론부의 욥은 관습적 신앙의 완벽성(하나님의 축복-물질적 부, 하나님의 인정)을 묘사해주고 있다. 만

변에 42장 결론부의 욥의 상황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영성적 신앙의 조화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구약의 세계관을 언급한 것처럼 물질세계의 변영이 곧 영적 세계의 축복이요, 영적 세계의 충만이 곧 물질세계의 축복임을 나타내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서, 욥기의 결론부에서,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엘리후와 하나님의 연설을 통한 점증적 성장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받은 큰 깨달음과 영적인 축복은 구약성서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안정된 물질 세계의 묘사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욥기는 마지막 인과응보 회귀와같은 것을 통해서 여전히 현실안에서 주요한 흐름처럼 보이는 인과응보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동시에 이와같은 욥기저자 시기의 신앙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오늘날 우리도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한다.

2. 욥기의 메시지 정리

1)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고난'이 있으며, 동시에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 구약의 고난에 대한 이해 5가지

- a. '인과응보의 고난' - 3친구들이 말하는 것 같은 일반적인 고난
- b. '신비의 고난' - 욥이 당하고 있는 까닭없는 고난
- c. '교육적 고난' - 엘리후가 이해한 고난
- d. '공동체적 고난' -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당하는 고난
- e. '대속적 고난' - 누군가를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

2)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리역할을 해준다.

-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라고 할 수 있다. 종종 인간은 이와같은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단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고난이나 불행이라는 악은 원칙적으로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파괴적인 고난 가운데서 가장 건설적인 생명의 본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같은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신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지켜보고 계셨다. 아니 눈물 흘리셨다(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는 다만 고난 속에서 우리 삶과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다(코로나처럼). 인간의 불행과 고난은 하나님에게도 뜻밖의 일일 수 있다(요셉, 광야의 40년, 약 1:13).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밖의 일'들을 '뜻 안의 일'로 바꾸신다. 그렇게 보면 고난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다. 삶의 고난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

3. 욥기의 현대적 주제들

1) 인과응보의 신명기적 신학의 포기는 신에게서 도덕적 명예를 벗겨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성공은 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새로운 지혜를 갖게한다. 이것은 오늘날 성공의 신화로 포장된 거짓 복음주의, 건강과 재물의 축복 신학을

붕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으로 포장된 복음주의는 실로 성서가 경멸하고 배척하는 ‘공중의 권세잡은’사탄의 천박한 유물주의일 뿐이다. 그러나 사탄의 제자들은 인과응보라는 유물론적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결과론적으로 재단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물질적 성공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달려간다.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 달리기에서 앞서서간 사람들은 자신들을 축복의 증거로 내세운다¹¹⁾. 그러나 욥기는 희생자를 다시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불행은 죄의 증거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한다. 불행은 죄가 있어서 닥쳐오기도 하고, 죄가 없어도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욥은 사탄의 반명제이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욥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는 욥을 그리스도의 선례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욥의 완성으로 생각한다(욥 19:25-27¹²⁾). 욥이 사탄의 반명제라고 할 때, 사탄은 욥에게 고통을 부과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사탄이 신의 허락을 바당 고통을 부과한다면, 욥의 고통의 궁극적 원인은 신이다. 신은 사탄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존재이다. 욥기에 나오는 신의 본성을 사탄으로 본 것은 블레이크이다. 그는 밀턴의 ‘실낙원’의 신의 본성마저도 사탄으로 규정하였다. 비슷한 관점에서 욥은 사탄을 여호와와 그림자로 보았다. 신은 사탄의 모습에서 인간적 신의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 대상이다.

욥의 반명제인 사탄, 즉 신과의 관계에서 신의 진화과정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욥의 부당하고 부조리한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면, 욥기는 실존 문학의 효시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욥의 부조리한 운명은 어느날 아침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체포되어 끝내 그 이유를 모르고 처형당하는 요제프 K, 마틴 부버가 욥을 가장 잘 표현하였다고 말한 카프카의 ‘소송’으로 재등장한다. 그런데 소송의 부조리성은 또한 현대의 관료주의적 비인간주의에 대한 고발, 또는 파시즘적 폭력체제에 대한 고발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난쟁이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관료주의와 파시즘의 폭력적 희생이 되는 또 다른 요제프 K요. 현대판 욥일 수 있다. 그것은 부끄럽게도 21세기 어디에서나 재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욥의 사탄, 즉 신에 대한 불평과 항의, 신을 심판대에 세우는 저항에 초점을 둔다면, 욥기는 위대한 정치적 저항의 책으로, 나아가서는 위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의 책으로 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옛날 옛적의 책도, 단순히 은혜를 끼치려는 싸구려 복음의 책도 아니다. 욥기에는 폭력이 있고, 저항이 있으며, 부조리가 있고, 희생이 있으며, 포기과 조소가 있고, 신마저도 심판대에 세우는 의지가 있다.

11) 정의란 무엇인가? 즉 공정성에 대한 논의.

12) 욥 19: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표준새번역 25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26 내 살갓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뵈을 것이다. 27 내가 그를 직접 뵈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뵈 때에, 하나님이 낮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